

‘낙후지역 특위 폐지’ 71%가 부정적

■ 전국 행정학 전문가 51명 설문 조사

53%가 “조직개편안 잘못됐다”

전국의 행정학자들은 각종 위원회 가운데 낙후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일부 특별위원회를 폐지 또는 축소기로 한 이명박 정부의 방침에 대해 10명 중 7명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이명박 정부에서 새로 마련해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이 같은 결과는 광주일보사가 지난 25~26일 조사대에서 열린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전국 대학의 행정학 교수 51명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각종 위원회 축소정책에 대해서는 72.5%가 “매우 또는 대체로 잘한 일”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21.6%에 비해 무려 50%포인트가 더 높은 수치로, 전문가들이 각종 위원회 축소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등 낙후지역을 위해 마련된 몇몇 위원회가 폐지되는 데 대해서는 70.6%가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등 낙후지역 발전과 같은 특별한 목적을 위한 위원회의 폐지에 대해서는 “잘못한 일”이라는 입장을 나타

■ 이명박 정부 낙후지역특위 축소정책 평가



냈다.

또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2.9%가 “매우 또는 대체로 잘못된 편”이라며 부정적 평가를 내렸으며, 현재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5개 부처와 관련해서도 모두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은 7.9%에 그치는 등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에서는 또, 교육개혁과

규제완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전체적인 개혁방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다소 우세한 반면, ‘경제에 중심을 두는’ 개혁 기조에는 긍정적인 견해가 더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2월25일로 임기가 마무리되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잘 못됐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49%로, ‘잘 했다’는 평가보다 15%포인트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간의 삶과 행정의 미래 : 새정부 개혁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하태수 경기대 교수는 “새 정부가 하려는 사업이 워낙 많은데, 피해 당사자의 조직적인 반발도 예상되고 있어, 정부규모가 일방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하는 등 대다수 참석자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인구는 줄어도

광주·전남 지자체

공무원 늘었다

광주·전남 지자체의 인구가 줄고 있으나, 공무원 수는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행정자치부의 전국 시·군·구별 연도별 공무원 정원자료(2002년 말 ~ 2007년 6월)에 따르면 인구가 줄었는데도 공무원이 늘어난 145곳 가운데 포함된 광주시 기초 자치단체는 4개구(동·서·남·북)로 모두 265명 늘었으며, 전남은 19개 시·군·구를 통틀어 812명 증가했다. 특히 광주 서구의 경우 91명이나 늘어났으며, 남구 85명, 북구 67명, 동구 22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무원 정원이 준 곳은 전국에서 나주시 한 곳 뿐으로 2002년말 996명에서 2007년 6월말 992명으로 정원을 4명 줄였다. 보성군은 정원을 동결했다.

또 같은 기간 광주시 전체 공무원 정원은 5천795명에서 6천412명으로 617명 증가했으며, 전남의 경우 1만9천 51명에서 1천명 증가한 2만 51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구별 인구수가 준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자치단체의 지방사무 이관에 따라 인력 충원이 이뤄졌기 때문에 무분별한 인력 증원은 아니다”고 밝혔다.

/윤영기자 penfoot@



설악산 빙폭 오르는 광주·전남 산악인들

지역 알파인스트의 산악인 ‘광주·전남 등산학교’ 동계반이 설악산에 개설됐다. 지난 26일 광풍 얼어붙은 천불동계곡의 토막골 형제빙폭(氷瀑·길이 80m)에서 참가자들이 얼음벽에 아이스비일(빙벽용 손도끼)을 찍으며 빙벽타기 훈련을 하고 있다. 광주시학생산악연맹(회장 박상수)이 주최한 이번 동계 등산학교에는 대학생과 일반인 50여명이 참가했다. (광주시학생산악연맹 제공)

“변화하는 모습 못보이면

호남에서 지지 철회할 것”

손학규 신당 대표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는 27일 “호남에서 제대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호남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5면〉

손 대표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 “호남 기반이 튼튼할수록 거기서 신당의 변화를 일곱 분들이 나와야 한다는 요구가 호남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아주 좋은 징조”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또 “광주·전남지역에서 누구를 공천하던 전부 당선된다는 자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 대선에서도 호남이 80% 이상의 지지를 보여줬지만 나중에 지지해 준 측면이 있

다”며 “호남에서는 누가 공천이 되더라도 당선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쇄신 방향과 관련, 그는 “국민에게 일단 보이는 것은 새로운 인물이다. 새 인물을 많이 내야 한다”며 인적쇄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뒤 “다음으로는 국민 피부에 와닿는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 야당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물갈이 폭에 대해서 “30%다, 40%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며 “정말 변화된 모습과 지역주민들의 변화된 정서를 보여주면서도 선거라는 현실을 전혀 외면해선 안된다. 이를 적절히 조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생계 지원금 설 이전 지원”

강무현 해수부장관, 타르 피해 어민에 약속

강무현 해수부장관은 전남 타르 피해 어민들에게 설 이전 생계지원금 지원을 약속했다.

강장관은 지난 26일 무안군 해제면 타르 피해 지역을 방문, 어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조속한 생계비 지원과 보상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어민들의 건의를 접하고 이같은 약속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 어민 대표 20여명은 피해를 입었지만 자료 미흡 등으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현실에 맞는 보상을 요구했다. 어민 김용기(67·무안군 해제면)씨

는 “작년 이맘쯤엔 김 수확을 6~7번 했을 텐데 지금은 손 놓고 있다 보니 아들 등록금 낼 돈이 없어 휴학시키고 군대를 보냈다”고 말했다.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 어촌계장인 박상범(52)씨는 “청정 김으로 유명한 무안 지역이지만 아직도 바람이 부는 날에는 타르 덩어리가 계속 밀려와 불안하기만 하다”며 “태안지역 어민 3명이 자살하는 등 분위기가 흉흉한데 우리들도 그에 못지 않다. 당장 먹을 쌀 걱정하는 사람도 많은 만큼 하루빨리 생계비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2면으로 계속〉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제43회 광주일보 3월 1일 광주일보간담회개최
3.1절 전국마라톤대회
http://marathon.kwangju.co.kr ☎ 062)220-0541

국립전남대학교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박요주 세무사 개업인사
2008년 1월 28일
세무사 박요주 개업
개업일시: 2008년 1월 30일(수) 12:00 (☎ 225-4907)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3가 1-5 동명빌딩 5층

LANEIGE